



이것은, 회화도 조각도 아닌 그 무엇

국제갤러리 '도널드 저드' 전 합판·철판 등 자재로 단순 반복 미국 미니멀리즘 대표하는 거장

속이 빈 상자꼴 나무 조각이 전시장 바닥에 놓였고, 빨강·파랑 등으로 채색한 알루미늄 상자는 벽면에 부착됐다. 도널드 저드(1928~94)의 1970~90년대까지의 작품 14점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전시 중이다. “뭐야, 상자잖아” 할 수도 있겠다. 도널드 저드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저드의 아들 플라빈(46)은 “아버지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전의 모든 예술적 양상을 거부했다. 박스 형태의 작품을 내놓은 것도 ‘뭘 그리고 조각한 건가’라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해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저드는 기존의 미술사나 작품 이면의 스토리텔링으로부터 독립해 ‘지금 이 공간의 사물’로서 이해될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산업 자재로 쓰이던 합판·철판·알루미늄·플렉시글라스 등으로 단순한 상자를 만들고 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했다. 재료 및 기술, 형태, 반복과 색채 등에서의 완성도만을 추구하며 회화도 조각도 아닌 그 무엇을 만들어 이를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이라고 명명했다. 그리하여 추상 표현주의 이후 미국 미술의 주된 양식이 된 미니멀리즘의 대표 조각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회화와 조각 사이의 그 무엇을 만들고자 했으며, 미니멀리스트로 묶이길 거부했다.

“아버지는 미니멀리즘 작가가

아니라 가구·건물 등 삶 전체를 아우르는 조화를 중시한 ‘맥시멀리스트’였다”고 플라빈 이사장은 강조했다. 이 엄정한 작가에 대한 아들의 회고는 이랬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작품 앞에 놓인 서랍장을 보고 아버지가 안절부절 못 하다가 ‘아니야, 틀렸어,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돼’라며 윙크하고 계셨다. 작품뿐 아니라 집의 가구나 소품도 늘 ‘제자리’에 있어야 했다.”

도널드 저드는 20세기 미술사에 한 자리를 차지한 거장으로, 지난해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총액 기준 4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이 스스로 이야기를 엮어 내는 걸 꺼렸던 그는, 작품을 통한 주변 공간의 변화를 꾀했다. 플라빈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한두 점을 보



도널드 저드

구 등을 통해 그가 추구한 예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드 재단은 저드의 이같은 총체적 미감을 보여주고자 초창기 뉴욕 스튜디오와 만년에 정착한 텍사스 마파(Marfa)의 옛 군기지 스튜디오를 복원했다.

마파는 1946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기도 했던 작가가 과병 전 훈련 받았던 곳이다. 11월 30일까지, 무료. 02-735-8449.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미니멀리즘(minimalism)=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미술 용어.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회화·조각에서는 뭔가를 재현하거나 작가의 자기 표현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조형 수단을 쓰는 경향으로 나타났다.